노래·춤으로 시민들에 활력·즐거움 선사

2013 희망을 여는 사람들

〈4〉'행복문화사업단' 가수 이다영·이카루스 안무팀

李씨, 복지시설·교도소 공연 지역밀착 '행복전도사' 자부

광주 대표 춤꾼들 '이카루스' 꿈과 비전 담은 안무 온 힘

지난 2일 행복문화사업단 소속 댄스팀 이카루스와 가수 이다영(가운데)씨가 시민들에게 선사할 공연을 연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구순의 노모가 진심이 담긴 노래를 듣고 일어난 것처럼 광주시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그런 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가수 이다영(여·26)씨는 광주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노래를 불러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 연습실에서 2013년 새해를 맞아 더욱 멋진 춤과 노래를 시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이다영씨와 김민아(여·31)씨 등 8명으로 구성된 안무팀 '이카루스'를 만났다.

사회적기업 행복문화사업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씨는 광주에서 태어나 2006년 고교 3학년 때 전국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받은 후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불러왔다.

이씨가 활동하고 있는 행복문화사업단은 2008년부터 광주·전남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물론 주민복지시설, 요양병원, 교도소 등지에서 지역밀착형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행복한 광주'(김유성 작곡)라는 곡을 발표하고 전국을 누비고 있는 이씨는 "부산에는 부산갈매기, 목포에는 목포의 눈물, 여수에는 여수밤바다 같은 노래가 있는데, 행복한 광주가 광주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광주를 대표하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호남을 대표하는 노래에는 '눈물'과 '한' 같은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앞으로는 희망과 비전을 담은 노래를 지역민들에게 많이 선사해 활력을 심어주었으면 하는 게 이씨 바람이다.

이씨와 함께 공연을 펼치고 있는 안무팀 이카루스는 2010년부터 행복문화사업단에서 활동하며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발휘하고 있는 팀이다. 김민아 단장 등 광주에서 태어난 멤버 8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안무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행복문화사업단 류동훈 단장(42)은 "가수 이애자씨가 유방암으로 고통받는 구순의 노모를 위해 만든 노래가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이를 들은 어머니의 병세가 크게 호전됐다"며 "행복문화사업단의 노래와 춤이 광주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단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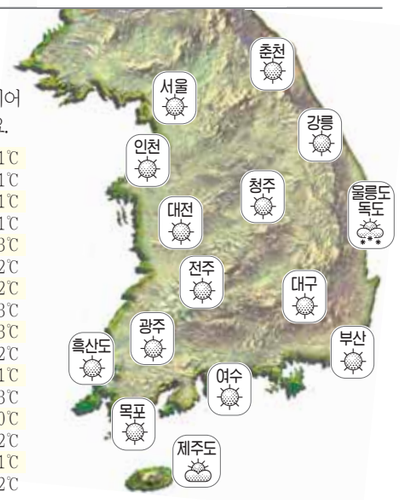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41분 해짐 17시 34분 달뜸 --시 --분 달짐 11시 21분

강추위 계속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 이어지니 건강 관리 유의하세요.

광 주	맑음	-12/1℃
목 포	맑음	-8/1℃
여 수	맑음	-6/1℃
나 주	맑음	-12/1℃
완 도	맑음	-6/3℃
구 례	맑음	-12/2℃
강 진	맑음	-8/2℃
해 남	맑음	-8/3℃
장 흥	맑음	-8/3℃
순 천	맑음	-11/2℃
영 광	맑음	-10/1℃
진 도	맑음	-5/3℃
전 주	맑음	-12/0℃
군 산	맑음	-11/-2℃
남 원	맑음	-13/-1℃
흑산도	맑음	-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0~2.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서~북	1.0~1.5m

	밀물	썰물
목포	06:17 18:39	11:31 --:--
여수	00:59 13:23	07:01 19: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날 씨						
최저/최고	-7/2	-3/3	-3/3	-3/4	-4/3	-3/4

광주교육청 '근무평정' 방식 또 바꿨다

5급 이하 일반직 1년만에 부서장 평가 70%로 상향

일부 "인사권 강화 내부통제 의도 아닌가" 불만 토로

광주시교육청이 1년 만에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식을 다시 바꿔 논란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부서(동료직원) 다면평가 30% ▲부서장 평가 70%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말 본청 실·과·소와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새로운 기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이같은 근무성적평정 방식의 변경 내용과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불과 1년전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며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했는데 1년 만에 이를 바꿨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2011년 말 전담팀을 꾸려 ▲업무실적평가 40% ▲경력평가 20% ▲부서(동료)다면평가 20% ▲부서장평가 20%로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평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평가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평정기준에서 업무실적평가와 경력평가를 삭제하고 대신 부서장 평가를 70%까지 상향하고 부서(동료)다면평가도 30%로 올리는 등 평가방식을 변경했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이에대해 업무실적 평가를 없애버리고 부서장 평가를 70%까지 올린 것은 "인사권 강화를 통해 내부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업무실적 평가하는데 1600명의 실적평가서를 하나하나 모두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이를 개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대 용봉캠퍼스 부총장 신설 검토 지병문 총장

전남대가 부총장을 두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여수캠퍼스에만 있는 부총장을 용봉캠퍼스에도 두겠다는 계획이다.

지병문 전남대 신임총장은 3일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현재 1명인 대학 부총장을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총장은 "여수캠퍼스보다 규모와 인력, 업무 등이 훨씬 많은 용봉캠퍼스에는 부총장이 없는 것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학교 일반업무는 부총장이 맡고, 총장은 대외적인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학교 발전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대외 활동을 위한 서울 사무소 개설 방안도 소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